

본 논문은 역대기 저자의 역사적, 신학적 동기를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역대기 신학에 대한 그 동안 연구들을 가능한 종합하여 정리된 역대기 신학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역대기는 하나의 단일한 목적 혹은 논법을 가지고 전체를 써내려 가려고 시도하였으며, 그는 구속사적 씨호름을 추적하는 신학적 목적을 이룩하려 하였다.

---

## 역대기 저자의 신학

---

최 종진 | 서울신대

### 1. 여는 말

역대기 저자의 역사적 삶의 자리는 바로 포로기와 그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대하 36: 22-23; 대상 9: 1-34)이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 남은 자들은 사회적으로 좀 열등한 신세로 한스럽게 살아간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이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건 그들의 자랑이던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가 무너진 상태였다. 바벨론 이방 땅에 있던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졌던 절기와 축제들을 기리며, 가족단위의 절기나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그들은 역사와 종교적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최우선으로 이뤄야 할 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회복과 예루살렘 도성재건이었다. 이는 그들의 정체성 확립과 깊이 관련되어, 역대기 저자는 기원전 4백년대의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神政國家)인 참된 이스라엘의 유일한 후사로서의 합법성을 역설한다.<sup>1)</sup> 이를 위해 기존 이스라엘 역사 자료들을 수정 가감하고, 재해석하며 독자적인 자료들을 활용하여 당면

한 사회적 문제에 신학적 해석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 저자의 독특한 신학으로 발전하게 된다.

## 2. 역대기기자 신학의 배경

역대기 저자는 포로로 흩어졌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하나로 규합하고 그 정체성을 추스르는 신학이 필요했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대부분의 상류계층과 고급인력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자, 가나안땅에 남게 된 이들은 주로 변두리 천민계층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지도자급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70년 가까운 포로기간 동안도 자연스럽게 새로운 지도자 계층이 형성된다. 그러나 바벨론의 속국으로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서로 결혼도 하고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바벨론 멸망과 함께 고레스 칙령(대하 36: 22-23)이 발표되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부터 문제가 노출된다. 포로생활을 겪었던 백성들은 포로민으로 당한 고통과 더불어 고국에 돌아와 정착하는 과정에서 또 아픔을 겪게 된다. 돌아온 소위 엘리트 지배계층이었던 지도급 사람들은 포로가 되기 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되찾으려고 자연스레 시도하였다. 그래서 잔존 세력과 귀환 엘리트 그룹세력 사이의 권력구조가 실제적으로 뒤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가나안땅에 남아 포로기간 동안에 지도자로 이미 부상하고 있었고, 그동안 본국에서의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그 사회를 지켜왔던 소위 '땅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던 비포로민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민들의 복권과 주장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sup>2)</sup>

포로기의 예언자들은 포로생활을 수용하면서도 포로시대를 뛰어 넘어 회복과 재건설을 내다보고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렘 1: 10; 31: 31; 겔 11: 17; 36: 26). 거기 희망 안에서 야웨의 백성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구성하여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느냐 하는데 관심을 가진다.<sup>3)</sup> 이 문제가 포로 후에는 바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 회복이라는 가시적 회복으로 발전했다고 본다. 학개는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만큼이

1) D. J. A. Clines, "역대기 기자의 목적과 신학," (윤영탁 옮기고 엮음, 「구약신학 논문집」(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9), 143-154쪽, 특히 145쪽.

2) 정 중호, 「이스라엘 역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291-292쪽.

3) W. Brueggemann, 「구약신학과의 만남」(차 준희 옮김),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7), 403-404쪽.

나 다윗 왕조 회복의 중요성도 확신하고 있었다(학 2: 20-23).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는 성전뿐만 아니라 다윗 가문 출신의 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sup>4)</sup>

스가라는 그의 책 전반부에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 재건’을 강조하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받을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축복을 약속하는 예언으로 되어 있다. 바로 그 축복의 약속은 주로 성전 건축의 완성이 메시아 왕국의 영화로운 미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백성들로 소망을 갖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sup>5)</sup>

그러나 포로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본국으로 귀환하였고(대하 36: 23),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대상 29: 3)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느 11: 1)이 재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이 말한 유다왕국의 비전과 기대가 이루어질 큰 영광의 가능성이 당장은 보이지 않았다. 이 어두운 역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약은 파기되었는가? 도대체 회복된 유다 공동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야웨 신앙적 국가체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야웨 하나님은 우리 계약의 당사자로서 무엇하고 계신가? 등등, 의문의 질문과 함께 계약신학이 흔들리게 되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세계 역사의 중심점에 있었는데 지금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들이 중심점을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sup>6)</sup> 이와 같은 미묘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도대체 누가 진정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한 참 이스라엘이란 말이나?”는 질문이 생기게 되었다. 70여년의 긴 포로의 공백 기간 동안에 변화된 사회적 상황, 포로민으로 돌아온 기득권층이란 자부심에 찬 정치적, 종교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계층과 본토를 지켜왔다는 긍지를 가진 주변계층으로 남아있던 다양한 족속들 사이의 이스라엘 정통성 논란 등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sup>7)</sup> 그러자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정통성과 정체성의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혈통적 접근으로서 족보와 정치적, 종교적 접근으로서 기나긴 역사서술과

4) W. Brueggemann, 윗글, 597쪽.

5) 김 회보, 「구약 스가라 주해(상)」(서울: 총신대 출판부, 1985, 14쪽. W. C. Kaiser, Jr., 「구약성경 신학」(최 종진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345-346쪽.

6) J. Bright, 「하나님의 나라」(김 인환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44), 196-200쪽.

7) 정 중호, 윗글, 292쪽.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를 통하여 그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화해와 협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역대기 저자는 “아담에서 셈 계통 그리고 아브라함과 유다지파의 다윗가문의 혈통적 전통을 가진 족보적 공동체와 예루살렘 성을 중심한 다윗왕조(남왕국)에 속한 정치적 공동체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아웨 하나님을 향한 예배 공동체”야말로 참 이스라엘의 맥을 잇는 진정한 이스라엘임을 주장한다.

### 3. 역대기 저자의 신학적 특징

역대기 저자는 아담에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 까지 역사기록을 위해, 조금은 다른 신학적, 역사적 전망을 가지고,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의 많은 부분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옮겨 놓은 것이다. 거기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학적 특수 자료들을 근거로 사무엘서-열왕기에는 없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한다. 역대기의 역사 기간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다상황(대하 36: 22-23)까지 그리고 돌아온 자들의 제한된 족보(대상 9장)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역대기 마지막 몇 구절(대하 36: 22-23)은 에스라서의 처음 구절인 1장 1-3절과 그 내용이 서로 겹치고 있어서, 역대기-에스라-느헤미야서를 하나로 연결하여 연구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활동은 하나의 다윗 왕국이 마지막까지 망해 야웨 신앙을 근거로 한 국가체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야웨신앙(Yahwism)을 살려내 유대교(Judaism)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토라 중심의 신앙(Torah piety)이나 폐쇄적 혈통 구조와 같은 유대교의 중추적 요소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sup>8)</sup>

역대기는 구약역사의 마지막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그 이전 역사서들 보다 좀 더 발전된 신학적 사상들을 거의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겠다. 이 역사가는 포로후기의 복잡한 구성원들을 통합하고 그들에게 ‘포로후기의 미래를 어떻게 제시해야 하느냐?’가 관심거리였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사회와 정치와 종교의 모델이 될 역사적 사건과 중심인물과 중심장소 그리고 왕조와 신학을 내세워야 했다. 그런 면에서 역대기 저자는 역사자료를 그냥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

8) W. Brueggemann, 윗글, 603쪽.

에 따라 역사 사건을 신학화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분명한 역사관과 뚜렷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 역대기 저자가 강조한 그 중요한 신학을 간추려 보려고 한다.

#### 1)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속성: 구속사의 정체성 제시

역대기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대상 1: 1-27)의 서술로 시작된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속을 족보를 통해 제시하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포로에서 귀환하여 자기 존재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던 때였기 때문이다. 인류의 조상에서 시작하여 노아의 3아들 중 셈을 거쳐서 민족의 조상이며 계약의 주체인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통하여 포로 후기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후예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속선상에 있는 혈통적, 계약적 후계자임을 확신시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이는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향한 구원사적 전통을 세우는 것으로 인식하여 역대기의 신학이 미래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바로 구약성서에서 율법은 만능이라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구원사의 입장에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구약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미리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구주의 오심을 알려주는 충분한 지시를 밝혀 주는 것으로 읽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구약성서에, 특별히 역대기에 기록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sup>9)</sup>

역대기 저자는 다윗왕조가 이미 시드기야로 끝이 나고 왕국으로 존재할 수 없었던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종교적 권력과 더불어 정치적 힘도 더욱 종교를 담당하고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무게가 실리면서 그들의 역할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sup>10)</sup> 구약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유다공동체는 절박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면서 과거의 다윗 통치시대의 영광을 더욱 회상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과거의 다윗 왕권을 새롭게 메시아적 왕권으로 이해하며 미래를 내다보게 한다. 역대기 상하가 동일하게 메시아적인 의미로서(시 2편; 100편 등 제왕시), 왕으로서의 다윗 그리고 왕의 신분이면서도 제사

9) 김 정준, 「폰 라드의 구약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44-45쪽. G. von Rad, *Theologie des ATs*, Bd. II, S. 309쪽을 재인용.

10) D. J. A. Clines, *윳글*, 152쪽.

장(대상 15: 25-28)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이해를 놓쳐서는 안 된다(대상 15: 25-28).<sup>11)</sup> 역대기는 구약역사의 마지막 시점에서 구속사적 씨흐름의 결론인 메시아를 향한 희망과 기대를 향하는 신학적 설명을 간직하고 있다.

## 2) 남왕국 중심의 역사관: 구속사적 씨흐름의 정통성 제시

역대기 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통성이 없는 배신집단으로 보는 반면에 남왕국 유다를 참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 계약과 시내산 계약 그리고 다윗의 영원한 왕조 계약의 진정한 상속자로 보고 있다. 역대기의 아담으로부터 사울의 죽음까지의 족보목록은 다윗과 솔로몬 통치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역사 그리고 제사장 계급과 레위인의 종교적 구조를 강조하는 서론적 자료이다. 그래서 사울의 통치는 단지 한 장(대상 10장)에 기록되고 이것도 다만 그의 죽음에 대한 묘사로 끝난다. 이는 다윗의 통치 왕국이 아담으로 시작된 구속사적 씨흐름의 혈통적 전승과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계승함을 선언하는 것이다. 다윗의 통치가 대상 후반부인 19개의 장(대상 11 - 29장)의 주제이고, 그의 후계자 솔로몬 통치가 대하 1 - 9장의 전반부에 기록되고, 대하 10 - 36장 후반부에는 남왕국 다윗왕조의 역사로 집중되어 있다.<sup>12)</sup> 그래서 북왕국 역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되는 북왕국의 정통성 결여(缺如)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혈통적 정당성 결여

북왕국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어서 다윗의 영원한 왕조계약에 위배되어 혈통적 정통성이 없었다. 씨흐름 구조의 씨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북왕국의 왕들은 언약 외의 왕들이기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가야 했다. 북왕국 초대 임금을 비롯한 모든 통치자들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이다(왕상 11: 26).

### (2) 정치적 정통성 결여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그들의 수

11) E. H. Merrill, 「대상하」(이 명준/이 종록 옮김), (서울: 두란노, 1989), 10쪽.

12) E. H. Merrill, 「대상하」, 9-10쪽.

도를 삼아야 했다. 이는 정치적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권위를 이루었던 예루살렘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시온 계약에 위배되었다(왕상 12: 25). 히브리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았고(사 2: 2-4),<sup>13)</sup> 장래의 평화의 성읍으로, 거기에 장차 임할 통치자를 평화와 의의 왕으로 규정하고(사 9: 7; 렘 29: 10-11; 미 5: 5), 세상의 중심(배꼽: 겔 5: 5-6; 38: 12)이며 세상의 빛(사 60: 1-9)이며,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숙 12: 14)이며 결국 종말에는 평화가 깃들 것으로 보인다(사 9: 6; 겔 36: 36; 미 5: 5).<sup>14)</sup>

결론적으로, 역대기 저자는 특별히 다윗 왕국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윗 시대까지의 모든 역사는 간략한 족보로 처리하는데 아담까지 올라가 인류 최초의 역사까지 소급하고 있다(대상 1: 1-7).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 사건과 광야 방랑과 가나안 정복 등의 육경의 역사가 아주 무시되고 있다. 그 기간은 아주 간단한 족보로 정리되고 있다. 다윗 이전의 사울왕조 이야기도 대상 9장 35-44절에 족보로 처리되면서 대상 10장에서 처참한 사울 가문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 다윗왕의 등극을 위한 역사적 정리차원에서 기록되고 있는 느낌을 준다(대상 10: 3-14). 여기서 포로후기 유다공동체가 자신들을 남왕국 유다의 연속적 정체성을 가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 회복이었다.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이지만 역대기 상 전반에도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강조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족보와 그들에 대한 배려가 특별히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대상 11 - 29장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제시키고 전적으로 남왕국인 유다의 다윗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죽음 후에 나타난 왕국 분열의 정치적 상황을 왕상 12장에 있는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소개하는데: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대상 10: 19//왕상 12: 19)로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있는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13) 한 상인, 「이스라엘 왕국시대의 고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41쪽.

14) R. L. Smith, 「구약신학: 그 역사, 방법론, 메시지」(박 문재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391-392쪽. H. J. Kraus, *Theology of the Psalms*, (Minneapolis: Augsburg, 1986), 78-83쪽. J. D. Levenson, *Sinai and Zion*, (New York: Harper and Row, 1985), 89-184쪽. N. W. Porteous, *Living the Mystery*, (London: Blackwell, 1967), 93-112쪽.

등극하는 사항을 생략해 버리고 바로 르호보암 왕권의 견고함과 각 성읍이 요새화된 것을 언급하고 있다(대상 11: 1-12). 이 왕국의 분열 다음부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윗 - 솔로몬 - 르호보암으로 이어 내려가는 다윗 왕조로 유지되는 유다 왕국만이 합법적이다'는 신학적 입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역대기는 예루살렘을 대항하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며,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다윗의 혈통이 아닌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대표할 수 없는 분리주의자들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겠다.

남왕국 통치자 중에서 가장 악하고 책망을 받았던 므낫세는 남북 왕들 중에서도 악한 왕에 속하였다. 그래서 열왕기는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왕하 21: 11)고 악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대하 33장 1-9절에서 열왕기처럼 므낫세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간단히 다루고 있지만 대하 33장 10-20절의 후반부에서는 열왕기에 나타나지 않는 자료가 제시되고 있다. 심지어 바벨론에서의 포로생활과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회개 기도하는 모습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기사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어서 아주 변화된 므낫세가 전에 지었던 우상과 산당을 훼파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하는 행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대하 33: 15-16).<sup>15)</sup>

역대기 저자는 남왕국 중심의 긍정적 역사관에 입각하여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므낫세이지만(왕하 33: 12) 나중에 회개의 표본으로 선하게 행동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다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하는 왕으로 묘사한다.<sup>16)</sup> 역대기 저자는 남왕국 멸망의 시점에서조차도 다윗 계통에게 주신 언약들을 붙잡고 있고(대상 17: 11-14; 20: 10; 대하 13: 5; 21: 7)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운명에 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는 사실을 주목할 만하다.<sup>17)</sup> 이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정치적 종교적 정통성을 강조하는 신학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15) R. Braun, 「역대기 상(WBC)」(김 의원 옮김),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1), 50쪽.

16) W. Brueggemann, 윗글, 604-605쪽.

17) D. J. A. Clines, 윗글, 151쪽.

### 3)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이상화:

#### 다윗의 영원한 왕조신화에 의한 메시아 왕권의 예시

역대기는 다윗 왕국이 중심이지만, 무엇보다도 언약의 왕 다윗과 솔로몬에 집중하고 그들을 극대화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역사기록이다. 대상 11장 - 대하 9장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할애하여서 역대기서 전체의 1/3에 이른다. 열왕기와는 달리 역사도 다윗 계열이 독점하고 다윗 왕통의 영구적 계승을 약속하는 나단이 전한 계시(대상 17장)가 전적으로 나타난다. 다윗이란 인물이 이상화 되었고 그의 약점들과 그의 궁전내의 추한 내용들은 빗겨간다.<sup>18)</sup>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차이점이 발견된다.

#### (1) 사무엘 - 열왕기의 역사기록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비판의 동시 묘사: 사무엘서나 열왕기의 역사에는 사울왕조의 건립과 사울왕의 영웅적 모습(삼상 11: 1-11; 15: 1-9)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비운의 통치를 인정(삼하 2: 8-9)하고 있다. 그리고 다윗의 유년 청년시절의 나약한 성격묘사나 사울의 공격으로 쫓겨 다니던 얼마간의 도피생활이나 다윗왕의 결정적 오점인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와의 불륜의 사건, 그의 말년에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난 부도덕한 사건이나 왕위 계승 분쟁이나 압살롬의 반란 등이 적나라하게 기록되고 있다. 솔로몬의 초기의 삶에서는 성공적 통치와 신앙을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sup>19)</sup> 솔로몬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그의 실정에 대한 열왕기의 부정적 평가도 다양하게 전개된다. 솔로몬이 말년에 이르러 타락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sup>20)</sup>

#### (2) 역대기의 역사기록

호의적 관점의 긍정적 평가로 의도적 전환을 이룬다.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이 아도니아 그룹과의 정치적 갈등과 승리를 쟁취한 사건(왕상 1: 11-40)은 언급도 없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건고하여 가며 그

18) D. J. A. Clines, *룻글*, 148쪽.

19) 최 종진, 「구약성서 개론」(서울: 소망사, 2004), 310쪽. L. Wood, *A Survey of Israel's History*,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0), 287-298쪽을 참고하라.

20) 최 종진, *룻글*, 310-311쪽. L. Wood, *룻글*, 299-301쪽.

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로 시작한다(대하 1: 1). 하나님에 의해 지명된 자로 온 이스라엘에 의해 즉각적이고도 만장일치로 자신들의 합법적인 왕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대단히 영광스런 시작을 기록한다(대상 29: 23-24).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부와 재물과 명성을 얻은 전무후무한 왕으로 묘사하고(대상 1: 7-17) 국내외적 번영을 이룩하고(대상 8: 1) 이스라엘 역사상 물질적 번영의 절정을 이룩한 것을 부각시킨다(대상 1: 14-17; 9: 1-28).

역대기 저자는 찬란한 성전(제 1성전)에 있어 솔로몬의 역할을 무려 일곱 장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소위 “다윗의 역사”(대상 22 - 29장)와 “솔로몬의 역사”(대하 1 - 9장)는 다윗왕과 솔로몬왕의 위치와 통치를 하나로 묶는 연결 단락으로 되어 다윗과 솔로몬을 동일한 무게로 다루고 있다.<sup>21)</sup>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의 인간적 실수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부정적 차원은 확실하게 비껴가고 있다.

즉, 역대기에는 사울의 영웅적 모습 등 사울왕조에 대한 긍정적 기록이나 다윗왕이나 솔로몬 등의 남왕국 통치자들의 부정적 평가는 생략하고 있다. 오히려 역대기에는 다윗왕의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면을 강하게 부각시키며 다윗과 솔로몬을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로 통일된 유다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했고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의 충성을 명령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sup>22)</sup> 역대기 저자의 역사 목표인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소망들을 전망하는데 다윗의 역할을 강하게 강조하며 다윗 왕권으로 기대하는 메시아 왕권의 표상으로 후대에 길이 기억되고 이상화되는 신학적 의도가 있다고 보겠다. 예언자들의 기대 속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새롭게 회복되는 날을 메시아 시대와 연결시키고 있다”(학 1: 8).<sup>23)</sup>

#### 4) 예루살렘 성전/제사 중심의 종교관: 예루살렘으로 종교의 중앙집권화

역대기 저자는 다윗 가문과 왕권에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가 야

21) R. Braun, 윗글, 25쪽.

22) R. Braun, 윗글, 25쪽.

23) R. Braun, 윗글, 43쪽. 그러나 몇 가지 다윗의 흠을 얼핏 내보이기도 한다. 즉 실패로 끝나는 다윗의 인구조사(대상 21장)나, 군인이며 전쟁의 사람으로(대상 28: 3) 피를 심히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대상 22: 8)고 역대기 저자는 간단히 언급하기도 한다.

웨 신앙적 삶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주관심사로 역사기록을 하고 있다.<sup>24)</sup> 역대기 저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동의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기쁨부음 받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의해 세워진 것이며, 북왕국 이스라엘백성과 남왕국 유다백성이 함께 헌당했고 출입했던 통일 이스라엘의 공동 성전이었기 때문이다. 포로후기의 회복된 공동체가, 다윗 솔로몬 시대에 통일 왕국을 이룩했던 것과 같이, 다시 하나가 된 통합 공동체요 통일 국가라는 확인과 기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25)</sup>

그런데 역대기 저자가 다윗왕조와 더불어 더욱 예루살렘 성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이 책이 쓰여질 때는 이미 다윗 왕조는 역사 무대에서 사라져 갔다. 역대기에서 성전의 지위는 핵심적인 문제로 다윗과 솔로몬은 그 성전 재건과 그것의 보존을 책임졌던 인물로 묘사된다. 역대기 저자에게 있어서 왕국의 주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성전 예배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건립과 거기서의 제사의식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대상 23 - 26장; 대하 2 - 7장).<sup>26)</sup> 당시로서 이미 이 왕정은 한때의 과거의 것이었으나 성전은, 특히 언약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종교적, 공동체적 삶을 위한 핵심 근거이었다.<sup>27)</sup> 다윗왕조는 역대기에 계속해서 나올 듯 하지만 그냥 마지막까지 가서 고레스 칙령으로 마무리 짓는데 거기도 성전 재건에 대한 명령은 담겨 있으나 다윗왕조 재건에 대한 언급이 없다(대하 36: 22-23). 다만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 왜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산으로 남겨 준 위대한 제도인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의 무대에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내 산 언약이 다윗 언약을 위한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재해석될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다윗언약은 예루살렘 성전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했다.”<sup>28)</sup> 포로 귀환 이후에는 지방 성소들이나 제의적 우상들이 이방인들의 거주지에서는 많이 발견되는데, 포로 후기 귀환공동체의 거주 지역에서는 발견

24) W. Brueggemann, 윗글, 604쪽.

25) R. Braun, 윗글, 33-34쪽.

26) D. J. A. Clines, 윗글, 152쪽.

27) W. Brueggemann, 윗글, 604쪽.

28) R. Braun, 윗글, 35쪽.

되지 않는 것은 이를 증명해 준다.<sup>29)</sup>

다윗과 솔로몬에 의한 성전건축은 성전제사 회복을 강조하는데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종교개혁에서 강조되는 유월절 회복이라는 주제로 제시된다. 이들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절기 회복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정체성 회복과 더불어 포로기 이후 공동체가 회복해야 할 모세의 규례를 따른 초기 유월절 전승까지 소급되는 예루살렘 제사를 전제로 한다. 여기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신분과 결정적 역할이 당연히 강조되고 있다.<sup>30)</sup>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를 주의 깊게 보면, 유다지파와 레위지파의 족보가 다른 지파들의 족보보다 더 많이 기록되고 반복되고 있다. 유다지파는 다윗 가문과 관련되고 레위지파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을 가장 많이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대체로 고대 근동에서는 신전건설과 신전관리는 신의 나라와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임무에 속했던 처럼 이스라엘에서도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 건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sup>31)</sup>

다윗 왕조 확립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건립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과제가 성전 건축에 있다는 신학적 조명을 하기 위해서 역대기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윗: 솔로몬 = 성전건축의 준비: 성전건축 실행」이라는 관계로 재정립하고 선임 왕(先王)과 후계 왕(後任 王) 관계로서 그들의 연속적 업적이 성전건축의 완성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전건축은 성전제사 회복을 가져오고 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위치와 신분의 회복을 자연스럽게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은 종교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통성의 결여 때문이기도 하였다.<sup>32)</sup>

29) E. Stern, "What happened to the cult figurines," *BAR* 15-4(1984), 53f.쪽. 한 상인, 윗글, 312-312쪽에서 재인용.

30) D. J. A. Clines, 윗글, 146쪽.

31) 한 상인, 윗글, 275쪽. G. W. Ahlstrom, "Administration of the State in Canaan and Ancient Israel," *Civilization of the Ancient Near East*, 596쪽. 재인용.

32) L. Wood, 윗글, 304-306쪽.

### (1) 종교적 정통성의 결여

예루살렘을 빼앗기자 예루살렘 성전(법궤)이 상실되자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최북단의 단과 최남단 벤텔에 산당을 짓고(예루살렘 성전에 대항) 거기서 금송아지 형상(언약의 법궤에 대항)으로 제사(아웨에 대항)를 드리도록 했다(왕상 12: 28-31).

### (2) 제사장의 정통성 결여

북왕국의 산당에서 금송아지 제사에 제사장들이 반기를 들자 여로보암은 제사장들을 학대하게 된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남왕국 유다로 전부 피신해 가고 여로보암은 레위지파의 아론 자손이 아닌 자들로 제사장을 임의로 세운다(왕상 13: 33).

### (3) 절기의 정통성의 결여

북왕국 사람들이 절기 때에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것을 막기 위해 절기를 한 달 뒤로 미루어 지키도록 변경하였다(왕상 12: 33).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통일왕국의 중앙에 위치하여 지파들을 통합하고 사회적 타협점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 귀중한 중앙집권적 중심점(예루살렘)을 잃게 되어 여로보암의 정치적, 종교적 입지가 어려워지자 죄를 얻게되고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왕상 13: 34). 열왕기서에는 다윗의 옳은 길과 여로보암의 악한 길이 대칭을 이루며 후세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데 역대기는 아예 이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선택한 북왕국의 통치자들과 그 역사 자체를 제외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역대기 저자는 가장 두드러진 두 명의 왕: 아버지와 아들: 다윗의 통치와 솔로몬의 통치를 성전건축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한 단락을 이루고 있어,<sup>33)</sup> - 다윗의 왕조가 무너짐으로 중심점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 성전중심의 유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정립하려고 하고 있다. 역대기 저자가 이같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 제사를 강조하다 보니, 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왕국 역사와 바벨론 포로 역사 그리고 포로후기 공동체 역사를 다윗 왕조와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33) R. Braun, 빛글, 45쪽.

다윗가문과 아론 계열의 제사장 계급과 레위 가문과 레위인들의 위상이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역할이 강조되면서 제사장 계급과 레위인 계열이 재조직되고 있다.

역대기 저자는 레위 자손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들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족보로 소개한다(대상 6: 1-81; 9: 10-34; 24: 1 - 26; 28). 포로 전에는 제사장 그룹과 레위그룹이 확실하게 구별되어 사독 계열이 세력을 갖고 행세를 했으나 성전이 불타고 제사장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자 그 세력이 약화되었다. 포로 후기 사회에서는 아론 계열이 세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역대기에서는 대체로 아론 가문도 레위 지파에 속한 것(원래 모두가 레위 지파지만)으로 자연스럽게 구별없이 사용된다.<sup>34)</sup> 상황에 따라서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를 준비하기도 하지만(대상 29: 34; 30: 1, 6-17) 제사를 거행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았다.<sup>35)</sup>

##### 5) 족보를 통한 레위인의 정체성 확립: 레위인들의 신분 상승

우리가 레위기에서 열왕기까지를 읽다 보면 어렴풋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가 모호할 때도 있고 확실히 구분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오늘날 일반 사회적 신분에서 문제화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모세 율법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포로기 이후까지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에 비해 보다 열등한 자리에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역대기를 접하다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좀 색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즉, 레위인들의 신분을 상당히 부각시키고 그들의 역할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신분상의 구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그들의 신분 구분이 존재하지만 역대기에서는 다윗통치 시대에 이뤄진 제사장과 레위인제도의 확립을 재발견하면서 줄곧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협력과 화해의 모습을 레위인들의 입장에서 제시하려고 했다. 예를 들면, 성전에 필요한 인력수급을 위해 레위인의 봉사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낮추고(대상 23: 3, 24, 27), 그들에게 성전 기구의 보전과 정결상태 유지 그리고

34) 정 중호, *릿글*, 292쪽.

35) R. Braun, *릿글*, 40-41쪽. H. Gese, "Zur Geschichte der Kultsänger am zweiten Tempel," O. Betz, et al.(ed.), *Abraham unser Vater*, Festschrift für Otto Michel, (Leiden: E. J. Brill, 1963)의 Gese의 주장을 재인용하여 참고로 함.

제사장 보조, 진설병과 소제물 준비, 제물의 양과 길이 측정과 찬양 업무를 부여했다(대상 23: 28-31).<sup>36)</sup> 이러한 새로운 임무 부여는 레위인의 업무가 언약궤를 메는 운반 임무에서 성전에서의 임무로 이동되었을 뿐 아니라 오경에 규정된 임무를 넘어서고 있다고 본다.<sup>37)</sup> 역대기 안에서 어떤 경우든 이와 같은 레위인들의 신분상승의 자리매김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이뤄진다.

#### (1) 레위 족보를 통한 정체성 확보

역대기는 대상 1 - 9장의 족보 중에서 특별히 대상 6장 1-81절의 레위가문의 족보들인데, 더 나아가 대상 9장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대상 9: 10-13)/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사람들(대상 9: 14-16)/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나머지 레위 사람들 족보가 소개되고 있어 유다족속의 족보(대상 2: 2 - 4: 23 => 약 99절)보다 더 많은 분량(약 105절)으로 되어 있다.

여기 족보에는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첫째는, 광야생활에서 아주 부정적인 기억이 있는 고라와 그의 아버지로 소개된 암미나답에 관한 것(대상 6: 22)이다. 둘째는, 다섯 번 반복(히브리어 본문)되는 엘가나의 존재(대상 6: 23-27)이다. 엘가나는 사무엘상 1장 1절의 족보에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로 나온다. 역대기에도 엘가나의 아버지가 여로함으로 나온다. 이와같은 족보의 재정리를 통해 성전제외와 관련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조화로운 화해를 시도하려고 했다. 사독계열의 대제사장과 왕들의 선견자로서 헤만 계열을,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 회복된 성전제외의 노래하는 자들로 아삽의 계열이, 성전 문지기로서 여두둔 또는 에단 계열이 합법적으로 자리매김 된 것임을 주장한다.<sup>38)</sup>

36) 배 희숙, “레위인을 위한 역대기의 개혁 프로그램” 「구약논단」 제 21집 (2006. 8), 69-85쪽, 특히 71쪽.

37) 배 희숙, 윗글. S. Japhet, *1 Chronik*(HThKAT 16), (Freiburg: Herder, 2002), 380쪽. “정밀한 밀가루와 무교병, 술을 준비하는 임무에 대한 책임소재가 오경과 에스겔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양과 무계를 측정하는 일은 온 공동체나 통치자의 책임으로 규정되었다.” G. N. Knoppers, “Hierodules, Priests, or Janitors, The Levites in Chronicles and the History of the Israelite Priesthood,” *JBL* 118(1999), 62-63 재인용.

38) H. G. M. Williamson, “The Origins of the Twenty-Four Priestly Courses: A study of 1Chronicles xxiii-xxvii”, *Studies in the Historical Books of the Old Testament* (VTSup 30), (Leiden : Brill, 1979), 251-268쪽.

## (2) 다윗에 의한 레위인들의 역할 회복

“다윗 개혁을 통해 레위인들은 언약궤를 이동하는 대신에 성전에서의 새롭고 독자적인 임무를 획득하지만 그들의 지위는 여전히 제사장에게 종속되어 있다.”<sup>39)</sup> 대상 15 - 16장과 대상 23 - 27장의 두 단락에서 다윗이 모두 법궤의 이동과 함께 성전에서 일할 봉사자들을 레위인들 중심으로 재정리하여 임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레위인들의 자리가 확연히 부상되고 있다. 다윗의 생각에는 성전건축 후에 실제적으로 성전 제의를 담당할 봉사자로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종교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레위인들의 권위와 자리를 회복시켜 두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역대기에서 레위인들은 그들 고유의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음으로써 그들 스스로 독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됨을 알 수 있다.<sup>40)</sup>

## (3) 히스기야 - 요시아 개혁을 통한 위상 개혁

역대기에 나타나는 히스기야 요시아 개혁으로 “레위인은 다윗이 규정한 대로 제사에서 음악을 담당하고(대하 29: 25) 다윗과 아삽의 시로 아웨를 찬양하며(대하 29: 30), 다른 한편으로는 희생제사(대하 29: 30: 16-17, 34)와 제사장의 뭇에 참여하게 되면서(대하 31: 14-19) 제사장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요시아 개혁에서 레위인들은 온 이스라엘의 가르치는 자와 봉헌된 자, 아웨와 백성의 봉사자로 정의되며(대하 35: 3) 유월절에서의 제사권을 법적으로 행사한다. 즉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 레위인의 기능은 확대되고 그들의 자격은 격상되어 비로소 제사장과 거의 동등한 제의관리로 발전하게 된다.”<sup>41)</sup> 제사장과 동등한 입장에서의 레위인 활동을 언급한다.

39) 배 희숙, 윗글, 81쪽.

40) 앞의 책, 71쪽. J. C. Endres, “Theology of Worship in Chronicles,” *The Chronicler as Theologian*, Essays in Honor of Ralph W. Klein (JSOTSUP 371), (London: JSOT Press, 2003), 170쪽 재인용. 참조 J. W. Wright, “The Legacy of David in Chronicles: The Narrative function of 1Chronicles 23-27,” *JBL* 110/2(1991), 229-242쪽.

41) 배 희숙, 윗글, 81쪽. H. G. M. Williamson, 1 and 2 Chronicles(NCB),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1982), 353쪽. 재인용. 이러한 편집과 삽입의 과정은 포로기 이후 제2성전시기에 성전제의 안에 스며든 가나안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고대 야훼종교의 전통에 근거한 본래 야훼제의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 본다.

## 6) 인과응보의 신학적 역사관

역대기 저자에게는 불순종과 범죄는 항상 심판과 재앙을 가져오고, 반면에 순종과 공의는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는 '즉각적 인과응보의 신학'이 표현되고 있다(대상 10: 13; 22: 19; 28: 9; 대하 11: 16; 12: 14; 14: 4, 7).<sup>42)</sup> 그가 역사평가의 척도로 이 인과응보의 교리를 사용하며 솔로몬 이후의 역사를 정리하는데 즉, 북왕국 역사를 제외시키고 남왕국 유다역사 중심으로 그 정통성을 주장하는 근거의 교리이다. 그도 역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인과응보 교리의 메시지를 제시하고(대상 19: 1-3 등) 특별히 다윗의 솔로몬을 향한 훈계 속에 구체화되고(대상 28: 7-9), 요압을 통해서 다윗에게 참모 건의와 다윗의 고집과 어긋난 추진이 가져온 재앙 이야기에 현실화되고 있다(대상 21: 1-17).<sup>43)</sup> 역대기의 저자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속적인 관계는 철저한 인과응보의 교리에 바탕을 둔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충성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제사에 대한 배교는 하나님의 징벌을 끌어들이는 것이다.<sup>44)</sup>

역대기 저자는 이 인과응보의 교리를 솔로몬 이후의 여러 왕들의 통치와 삶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근본틀로 사용하되 보다 개인적이며 즉각적이었다. 예를 들면, 다윗 솔로몬 통치를 기술할 때도 이 교리가 밑바닥에 흐르고 있었다고 본다.<sup>45)</sup> 이 사상이 다음과 같은 언급으로 발전해가고 있다.<sup>46)</sup> 예를 들면, 야베스의 기도(대상 4: 10) 속에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깊이 스며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다. 아버지 다윗왕이 아들 솔로몬 왕에게(대상 22: 11, 13; 28: 9)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고 원리를 선언하고 있어 이 신학이 역대기 저자의 역사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

42) R. B. Dillard, “역대기서에 나타난 상과 벌: 즉각적 응보의 신학,” (윤 영탁 옮기고 엮음), 「구약 신학 논문집」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9), 156-163쪽, 특히 158쪽.

43) R. Braun, 윗글, 32쪽.

44) R. B. Dillard, 윗글, 161쪽.

45) R. Braun은 역대기 저자가 적용한 이 인과응보의 교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와는 관련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윗글 49쪽). 그러나 필자는 오히려 이 교리를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저자의 기본전제로 하고 북왕국과 여로보암의 악한 길과 대침을 이루는 남왕국 중심, 다윗 솔로몬 통치 중심의 역사기술을 하고 있다고 본다.

46) 참조 R. B. Dillard, 윗글, 156쪽.

다.(대상 28: 9). 사울왕 멸망의 원인이 불순종과 무당에 접근하여 여호와께 범죄에 의한 것으로 언급한다(대상 10: 3-14). 오벤에돔집 축복의 원인으로 하나님의 궤(말씀)을 소중히 간직하여 내린 복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대상 3: 4).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로부터 참고할 수 있었던 자료들에 대해 스스로 신학적 판단을 가지고, 인과응보 교리를 왕의 통치 전체뿐만 아니라 그 기간에 이리난 세부적 사건들에도 적용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좀 더 보충하여 명확히 정리하기도 한다.<sup>47)</sup> 그는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사상에 바탕을 둔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에 따라 모든 사건에 대한 신학적 정당성을 제시하려고 시도한다.<sup>48)</sup> 예를 들면, 웃시야가 초창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대하 26: 4-5) 하여 통치기간의 번영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대하 26: 5-15). 그러나 웃시야 왕이 나병환자로 일생을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다가 죽게 된 이유가 제사장의 특권들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으로 확실하게 제시한다.<sup>49)</sup>

한편, 역대기 저자의 신학적 독특성은 바로 인과응보의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통한 심판과 저주를 구원과 축복으로 전환시키는 전환의 신학 즉 회개의 신학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열왕기와는 다르게 역대기 저자는 므낫세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심판의 결과에도 그가 포로로 잡혀가 회개한 “간구와 겸손”을 하나님이 들으시사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거의 가장 긴 기간인 5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축복을 받았고 그가 열조와 함께 죽어 그의 궁에 장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대하 33: 1-20).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에서 유다의 죄악으로 당하게 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기간을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 지냈다고 결론을 맺

47) R. Braun, 윗글, 49-50쪽. 브라운은 역대기 저자가 신명기 사가의 평가를 자신의 역사 기술의 기초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 그런 면에서 역대기 역사기술에도 신명기적 인과응보의 사상이 깊이 스며있다.

48) J. Wellhausen,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New York: World Publishing Co., 1965), 209쪽을 R. B. Dillard, 윗글, 164에서 재인용. 벨하우젠은 “요람, 요아스, 그리고 아하스는 모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들로 묘사되었다. ... 오직 경건한 왕들이 숫자에는 르호보암과 아비야까지 포함된다)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역시 그러한 표로 나타난다. 힘은 경건의 지표이어서 그것에 의해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것이다”고 지적한다.

49) R. Braun, 윗글, 50쪽.

고 있다(대하 36: 21). 즉 역대기 저자는 인과응보의 엄격한 요구조건들을 초월하며 회개를 통해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여 역대기 저자의 신학을 훼손시키지 않고 독특성을 간직하고 있다.<sup>50)</sup> 이런 율법에 근거한 인과응보적 역대기 저자의 사상은 회복된 유다백성들의 삶에 율법적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이후의 유대교가 율법공동체가 되게 했다. 즉 율법을 지키는 자가 참된 이스라엘의 구성원이며 바로 거룩한 국가공동체라고 인정하게 된다.<sup>51)</sup>

#### 7) 과거 지향적 신학전망: 현재의 삶을 위한 과거의 이상화

내세를 지향하는 묵시 문학에서는 다가올 우주의 대변혁과 심판 그리고 의로운 남은 자들의 황금시대의 도래, 천상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상의 현실에서 표상을 끌어내어 미래에 투사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 세대에 대해서는 염세적인 태도를 취하며 현세와 내세를 포함하는 범우주적인 차원에서 이원론을 제시한다.<sup>52)</sup> 이와 반대로 역대기 저자는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온 후기 포로공동체가 현실 안에서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기 위하여 영광스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과거를 이상화한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언약궤를 운반할 때 웃사가 지은 죄(대상 13: 7-10)와 인구조사(대상 21장)외에는 다윗과 솔로몬 통치기간에 그들을 책망할만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칭찬받을만한 일에 초점을 맺고 있다. 특별히 그들의 성전건립과 성전 제사장과 레위인 신분을 정립하는데 행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sup>53)</sup>

역대기 저자는 후기공동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왕조인 다윗 시대의 통일왕국을 반복해서 회상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하여야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율법에 의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이해를 하며, 특별히 성전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또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신분을 어떻게 규정하여야 하는지를 과거를 이상화하고 현재의 삶을 정립하고 미래를 제시함으로써

50) R. Braun, *윳글*, 51쪽.

51) J. Bright, *윳글*, 215쪽.

52) W. Zimmerli, *Old Testament Theology in Outline*, (D. E. Green 옮김), (Atlanta: John Knox Press, 1962), 228쪽.

53) R. B. Dillard, *윳글*, 164-165쪽.

보이려 했다. 그래서 과거를 이상화하는 과거 지향적 신학전망을 통해  
오늘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쓰라  
린 체험이 포로 이후 예언자들에게서 종말론으로 바뀌어졌고<sup>54)</sup> 포로 이  
전 예언자들에게 있던 “야웨의 날”(Yom Yahweh) 사상이 포로 후기 예  
언자들에게서는 종말론으로 변했다고 보기도 한다.<sup>55)</sup>

#### 4. 닫는 말

역사가로서 역대기 저자는 포로전 예언자들의 희망의 메시지와 거리가  
먼 현실을 설명하고 포로후기 공동체의 새로운 희망과 통합을 위해서 과  
거 지향의 신학 전망을 부각시키며 자존심과 자부심을 끄집어내고 있다  
고 보겠다. 그런 면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메시아 사상이 아주  
확실하게 제시되지 못하는 것은 역대기 저자의 한계이면서도 특징이라  
보겠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오늘의 역사를  
해석 설명하며 거기에 회복공동체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과 그분에 대  
한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임과 그 지침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역대기 저자는 이런 모든 통합과 회복 그리고 미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행되는 여호와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통된 예배에 기  
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하 30장에서 역대기 저자는 유월절  
을 성대히 지킴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행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공동예배를 통해 하나가 되었다고 결론을 내린다.<sup>56)</sup>  
이런 역대기 저자의 신학이 한국에서 오늘의 다양한 교파와 혼합주의 신  
학 흐름 그리고 무력화된 교회의 정체성을 활성화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  
었으면 한다.

#### 5. 참고문헌

김 정준, 「폰 라드의 구약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54) S. Mowinkel, *He That Cometh. The Messiah Concept in the Old Testament and Late Judaism*, (G. W. Anderson 옮김), (Oxford: Basil Balsckwell, 1956), 139-44, 263쪽.

55) 장 일선, 「구약신학의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252쪽. D. S. Russel, *The Method and Message of Jewish Apocalyptic*, (London: Westminster Press, 1964)을 재인용.

56) R. Braun, *윗글*, 48쪽.

- 김 희보, 「구약 스가라 주해(상)」 (서울: 총신대 출판부, 1985).
- 배 희숙, “레위인을 위한 역대기의 개혁 프로그램,” 「구약논단」 제 21집 (2006. 8. 31), 69-85쪽.
- 장 일선, 「구약신학의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정 중호, 「이스라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최 종진, 「구약성서 개론」 (서울: 소망사, 2004).
- 한 상인, 「이스라엘 왕국시대의 고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Braun, R., 「역대기 상(WBC)」 (김 의원 옮김),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1).
- Bright, J., 「하나님의 나라」 (김 인환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44).
- Brueggemann, W., 「구약신학과의 만남」 (차 준희 옮김),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7).
- Clines, D. J. A., “역대기 기자의 목적과 신학,” (윤 영탁 옮기고 엮음), 「구약신학 논문집」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9), 143-154쪽.
- Dillard, R. B., “역대기서에 나타난 상과 벌: 즉각적 응보의 신학,” (윤 영탁 옮기고 엮음), 「구약신학 논문집」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9). 156-163쪽.
- Merrill, E. H., 「대상하」 (이 명준/이 종록 옮김), (서울: 두란노, 1989).
- Mowinckel, S., *He That Cometh The Messiah Concept in the Old Testament and Late Judaism*, (G. W. Anderson 옮김), (Oxford: Basil Balsckwell, 1956).
- Kaiser, W. C. Jr., 「구약성경신학」 (최 종진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 Kraus, H. J., *Theology of the Psalms*, (Minneapolis: Augsburg, 1986).
- Levenson, J. D., *Sinai and Zion*, (New York: Harper and Row, 1985).
- Russel, D. S., *The Method and Message of Jewish Apocalyptic*, (London: Westminster Press, 1964).
- Wright, J. W., “The Legacy of David in Chronicles: The Narrative function of 1Chronicles 23-27,” *JBL* 110/2(1991), 229-242쪽.
- Smith, R. L., 「구약신학: 그 역사, 방법론, 메시지」 (박 문재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 Wellhausen, J.,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New York: World Publishing Co., 1965).
- Williamson, H. G. M., “The Origins of the Twenty-Four Priestly Courses: A study of 1Chronicles xxiii-xxvii,” *Studies in the Historical Books of the Old Testament* (VTSup 30), (Leiden : Brill, 1979), 251-268쪽.
- Wood, L., *A Survey of Israel's History*,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0).
- Zimmerli, W., *Old Testament Theology in Outline*, (D. E. Green 옮김), (Atlanta: John Knox Press, 1962).

## 검색어

구속사적 역사 • 유다 공동체의 정체성 • 성전 • 레위인  
다윗왕조 • 구속사적 씨흐름



---

## The Theology of the Chronicler

---

**Joseph Jong-Jin Choe, D.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at the Chronicler had strong historical and theological motives in writing his work is self-evident. He would not bother to rewrite the history of a period which was already documented to resolve the questions at issue. Several attempts have been made to ascribe the entire book to a single purpose or mood. The Chronicler's aim was to establish his theological purpose on the successive redemptive stream of the redemptive seed from Adam to the seed of the woman which penetrates down in the Old Testament.

As you see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Chronicler, the exiles had now returned from Babylon and through his work the writer sought to show them the true glory of their nation as theocracy and to show them the rights and importance of the Davidic dynasty and the successive redemptive history through the restored Judaeian community. It is because of his purpose that the writer uses his materials in the manner that he does. He could pass over lightly the facts of history, however he rather embellished or interpreted them. For the purpose of his writing, he did by taking hold of the Davidic religious institutions -Jerusalem, the temple, the cultus, the priests, the Levites- through

which the people of the Lord could operate as a community once more. The Chronicler sees Jerusalem as the authentic place of worship, the returnees as the legitimate successors of the people of Judah and the cult personnel, and the community established by them as the true Israel.

He therefore passes over the history of the northern kingdom practically in silence, and in the life of David he treats principally those events which have to do with the nation's worship on Zion and which are preparatory to the erection of the Temple. For this reason also, in the life of Solomon, he brings onto prominence the formal worship of the theocracy, the Temple singers, the Levites and their functions, and all that had to do with such worship. It certainly is likely that this was done out of any theological interest. These theological interests brought the theology of the Chronicler on the returned Judaeen community from Babylon.

### **Keywords**

Redemptive history  
Temple  
The Levites  
Judaeen Community  
Davidic dynasty  
Priest